

대형재난 발생 시 텔레비전 방송, '무엇을' '어떻게' 방송해야 하나?

□ 이연 / 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I. 서론

흔히들 우리는 '재난방송'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피해주민들에게 전달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단지 재난 발생 시 재난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전달시스템에 국한된 이야기이다. 실제로 '재난방송'이라 함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방송해야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통해 그 의미를 정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재난방송은 전달하는 내용이나 전달 방법에 따라서 재난피해의 효과(impact)가 달라지기 때문에 재난방송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2011년 3·11 동일본대진재(東日本大震災: 동일본 지진으로 입은 재해) 당시 일본의 텔레비전 방송은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방

송했는지를 자세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주요방송 3사인 NHK, 니혼TV, 후지TV가 3일간(72시간) 실시한 재난방송의 ①기본화면과 ②전달내용 등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기로 한다.

II. 주요 방송3사 (①NHK ②니혼TV ③후지TV)의 중계시간과 방송내용

1. 중계시간

지진발생 초기 24시간 동안 방송 3사의 전 프로그램 중에서 약 40% 정도는 중계방송으로 편성될 정도로 중계방송의 비중이 높았으나, 24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현장 중계는 줄어들고 스튜디오의

영상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① NHK종합TV의 경우는 최초 24시간 동안은 중계방송이 39.1%를 차지할 정도로 현장중계를 많이 했지만, 24~48시간 사이에서는 14.6%로 대폭 감소하게 되고, 48~72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15.9%를 유지하게 된다. 일본의 민영방송인 ②니혼TV의 경우도 각각 37.9% → 20.7% → 16.5%로 낮아지게 된다. 또, ③후지TV의 경우도 각각 46.9% → 30.6% → 22.0%로 점점 떨어졌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방송 3사 가운데 후지TV는 총 72시간을 통틀어서 평균 33.2% 비중으로 생중계 재난방송을 실시했다. 반면, NHK는 23.2%, 니혼TV는 25.1%로 후지TV보다 상대적으로 중계방송 시간이 짧았다¹⁾.

2. 중계 내용

중계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①NHK종합TV의 경우는 <쓰나미 모습>이 14.4%로 가장 많고, <쓰나미 피해> 11.5%로 <쓰나미 모습>을 중계하는 영상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았다. 여기에 비해, ②니혼TV는 <쓰나미 피해>가 16.5%로, <인물> 12.9%나 <화재 모습> 10.2%보다 상대적으로 <쓰나미 피해> 중계가 더 많았다. ③후지TV의 경우도 <쓰나미 피해>가 23.2%로, <구출모습, 정보> 12.7%, <화재 모습> 12.0%보다 <쓰나미 피해>가 훨씬 더 많이 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²⁾.

3. 전달내용의 추세

전달내용의 추세는 어떤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최초 24시간 동안 방송3사 모두 <쓰나미>에 관한 영상이나 음성 자료를 가장 많이 보도하고 있었다. 특히, 24~48시간대에는 <원전>에 관한 정보가 가장 많이 보도되었다. 또, 피해자·피해지에 관한 정보인 <피해자 구조정보>의 경우 최초 24시간 동안은 <쓰나미>와 함께 가장 많이 전달되었으며, 72시간 동안은 방송3사 모두 10%대를 상회하였다.

한편, 피해자·피해지를 위한 정보인 생활정보(life line) 배분의 경우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①NHK종합TV의 경우는 타사에 비해 비교적 생활정보를 많이 방송했다. 특히, 음성정보는 72시간 중에 21.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여기에 비해 ②니혼TV나 ③후지TV의 경우는 생활정보가 상대적으로 적게 방송된 것으로 나타났다³⁾.

4. 생활정보와 피해자정보의 전달

1) 생활정보

방송 3사가 전달한 생활정보를 대별해보면, 크게는 ①정전 소식(계획정전 제외) ②교통정보 ③수도·가스 정보 ④전화·통신망 정보 ⑤병원·의원정보를 생활정보로 보도하고 있었다. 재난발생 72시간 동안 전달된 생활정보의 양을 분석해 보면 다음 도

1) 田中孝宣·原由美子, 「東日本大震災発生から72時間テレビが傳えた情報の推移」, 『放送研究と調査』(3月號), NHK放送文化研究所, 2012年, p. 2.

2) 田中孝宣·原由美子, 「東日本大震災発生から72時間テレビが傳えた情報の推移」, 『放送研究と調査』(3月號), NHK放送文化研究所, 2012年, p. 3.

3) 田中孝宣·原由美子, 「東日本大震災発生から72時間テレビが傳えた情報の推移」, 『放送研究と調査』(3月號), NHK放送文化研究所, 2012年, p. 3.

〈표 1〉 생활정보가 전달된 비율⁴⁾

방송국/구분	정전모습	교통정보	수도·가스정보	전화·통신망정보	병원·의료정보	
NHK종합	영상	0.9%	5.4%	0.3%	0.4%	0.5%
	음성	1.8%	7.6%	1.1%	1.0%	0.8%
니혼TV	영상	0.5%	2.3%	0.2%	0.1%	0.3%
	음성	1.8%	4.0%	0.7%	0.4%	0.2%
후지TV	영상	0.1%	2.2%	0.0%	0.1%	0.1%
	음성	0.9%	3.8%	0.5%	0.3%	0.2%

표와 같이 전체적으로 아주 적은 시간이 할당 되었다.

위의 〈표 1〉을 보면 NHK가 각종 생활정보를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생활정보를 가장 많이 전달한 정보는 ②교통정보로 NHK종합TV의 음성정보가 7.6%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니혼TV의 음성정보로 4%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각 방송국 공히 ①정전 모습을 전달하는 방송이 2위를 차지했으며, ③수도·가스 정보 ④전화·통신망 정보 ⑤병원·의료정보의 순위로 보도했고, 전달 시간은 아주 적은 한정적 시간이 할당되었다. 교통정보 이외의 생활정보에 관

해서 NHK의 경우는 진재관련 뉴스에 이어서 한정적으로 생활정보를 정리, 전달하는 패턴이 정착되어 있었다.

2) 피해자 정보

피해자에 관한 정보는 ①피난소·피재자의 모습 ②피재자의 요망·호소 ③구원에 관한 정보 ④구출모습·구출정보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재난발생 72시간 동안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분석해 보면, 방송 3사 모두 ①피난소와 피재자의 모습을 가장 많이 전달하고 있다. 또, ②피재자의 요망이나 호소에 관한 방송은 1%대 이하에 머물고 있

〈표 2〉 피해자에 관한 정보가 전달된 비율⁵⁾

방송국/구분	피난소·피재자의 모습	피재자의 요망·호소	구원에 관한 정보	구출모습·구출정보	
NHK종합	영상	7.2%	0.4%	0.4%	1.3%
	음성	5.1%	1.0%	1.4%	1.7%
니혼TV	영상	8.1%	0.1%	0.6%	3.4%
	음성	6.7%	0.7%	1.9%	3.6%
후지TV	영상	6.7%	0.3%	0.5%	7.0%
	음성	7.1%	0.3%	2.5%	7.5%

4) 田中孝宣·原由美子, 「東日本大震災発生から72時間テレビが伝えた情報の推移」『放送研究と調査』(3月号)、NHK放送文化研究所, 2012年, p. 8

5) 田中孝宣·原由美子, 「東日本大震災発生から72時間テレビが伝えた情報の推移」『放送研究と調査』(3月号)、NHK放送文化研究所, 2012年, p. 10.

었다. ③구원에 관한 정보에서는 타 방송사보다 가장 많이 구원정보를 전달한 후지TV 음성정보의 경우도 2.5%로 나타났고, NHK종합TV의 경우는 1.4%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방송국에 따라서 전달 폭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④구출 모습과 구출정보이다. NHK종합TV의 경우는 영상과 음성정보 공히 2%대 미만으로 최하위인데 비해, 후지TV는 영상과 음성정보 모두가 7%대를 넘었으며, ①피난소, 피해자의 모습 경우도 7%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NHK는 재난발생 일일의 경우는 ④구출 모습이나 구출정보 보다는 ①피난소나 피해자의 모습을 전달하는 데 무게를 두는 방송패턴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반면, 니혼TV나 후지TV의 경우는 ①피난소나 피해자의 모습보다는 ④구출 모습이나 구출정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이것은 아마 민간방송이기 때문에 시청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자의 목소리

재난발생 시 발화자, 즉 누가 방송에서 피해자에게 재난정보를 전달(말)하고 있는가를 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⑥피해자·피해지 사람들의 소리를 보면, NHK가 2.9%로 방송 3사중 가장 낮고, 이어서 니혼TV가

4.4%, 후지TV는 4.8%로 나타났다. 제일 높은 후지TV의 경우도 피해자의 목소리는 5%대를 넘지 못해 전체 발화자 중에서도 적은 편에 속한다. 지자체의 장이 주민을 대표해서 피해자의 궁핍을 호소하는 경우나 아나운서와 리포터가 피해자의 소리를 대신해서 코멘트, 전달하는 예도 있었다.

방송 3사 모두 피해자가 처해있는 심각한 상황을 전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직접 자신들의 입으로 호소하는 호소력에는 못 미친다고 보고 있다. 출연자, 즉 말하는 사람(화자)에 따라 방송국 사이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①NHK의 경우는 아나운서나 기자, 해설위원 등 자국 직원이 전달하는 비율이 무려 80%를 넘고 있다. 외부 전문가는 4.4%로 소수에 불과하다. ②니혼TV는 자국 직원이 대응하는 비율이 75.6%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외부 전문가도 8%나 된다. 후지TV의 경우는 직원이 대응하는 비율이 71.4%로 방송 3사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외전문가도 13.3%로 NHK에 비해서 3배 정도로 외부 전문가를 많이 활용해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NHK 재난방송은 원고로 정리된 정보를 주로 아나운서나 기자, 해설위원들이 전달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을 기본패턴으로 하고 있다. 반면, 후지TV는 스튜디오에 복수의 전달자를 배치해 비교적 자유롭게 발언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특징적인 경향이 있다.

<표 3> 발화자(發話者:전달자)⁶⁾

방송국/구분	①아나운서·뉴스캐스터	②리포터·기자·해설위원	③전문가·연구자	④정치가·중앙관청·관료의 기자회견	⑤자치단체의 장·직원	⑥피해자·피해지사람
NHK종합	63.3%	16.9%	4.4%	9.9%	0.9%	2.9%
니혼TV	58.8%	16.8%	8.5%	8.5%	0.3%	4.4%
후지TV	49.2%	22.2%	13.3%	8.4%	0.4%	4.8%

6) 田中孝宣·原由美子, 「東日本大震災発生から72時間テレビが伝えた情報の推移」, 『放送研究と調査』(3月號), NHK放送文化研究所, 2012年, P. 12.

III. 재난방송과 피해정보

1. 재난방송과 피해경감

1) 재난경보와 피해경감

재난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지진이나 쓰나미의 경우는 우선 ①지진이나 쓰나미에 강한 마을 가꾸기 ②지진이나 쓰나미에 대한 방재의식의 향상 ③원만한 피난행동의 체제정비와 규칙 만들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지진이나 쓰나미 경보>, <피난지시> 등이다. 행정루트나 주민 등에 의해 피난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피난정보를 전달하는 피난명령이다. 피난정보의 경우도 그 내용이나 전달방법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미치는 효과(impact)가 다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자체에 대해서도 내용을 개선한다든가, 정보전달 체계의 충실과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재난경보>나 <피난지시>를 내릴 때도 그 내용이나 전달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 ① 2011년 3·11 동일본 쓰나미 참사 당시 이바라기현 오아라이초(茨城縣大先町)에서는 <피난하라(避難せよ)>라는 명령조의 표현으로 주민들에게 피난을 호소하기도 했다.
- ② 이와테현 가마이시시(岩手縣釜石市)에서도 재난발생 직후 방재행정무선의 방송내용을 수정해서 명령조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가마이시시는 법률상의 <피난>은 시(市)·정(町)·

촌(村)·장이 <피난권고> 또는 <피난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명령>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 <법률상의 명령>과 <표현상의 명령조>는 현실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 ③ 미야기켄 온나가와초(宮城縣女川町)와 이시마키시(石巻市)의 경우도 이번 참사 시에 <피해 달아나(逃げろ-!)>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명령어가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1) 미야기켄 온나가와초 : 인구 8000명 정도로 3·11 쓰나미로 인해 초의 중심부는 거의 괴멸적인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당시 온나가와초 기획과방재계 아베기요히도(阿部清人) 계장에 의하면 3월 11일 당일은 지진발생 직후부터 아래와 같이 재난행정무선방송을 실시했다고 한다.

▶ 사전에 준비된 원고로 방송개시⁷⁾

- 지진발생 직후 온나가와 초 기획과 여직원들은 바다가 보이지 않는 3층 방재행정무선실에서 처음 재난방송을 개시하게 되었다.
- 대형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자, 아베계장은 그 직원에게 5분의 1회 정도 할당해 반복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 때 사용한 사전 준비원고는 다음과 같다.
- “온나가와 초 기획과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형 쓰나미경보가 발령되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높은 곳으로 피난해 주십시오.”였다.

7) 井上裕之「命令調を使った津波避難の呼びかけ」『放送研究と調査』(3月號), NHK放送文化研究所, 2012年, p. 22.

8) 井上裕之「命令調を使った津波避難の呼びかけ」『放送研究と調査』(3月號), NHK放送文化研究所, 2012年, p. 23~24.

- (2회 반복)
- 방송은 59기가 있는 옥외 스피커나 호별 수신기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전달되었다.
- 그때 아베계장은 2층 기획과 집무실이나 방재대책본부에서 직원들은 주민의 피난유도에 주력하게 했다고 한다.

- ▶ 수몰 직전에 부르짖었던 명령조 <피해(逃げろ-!)>
- 온나가와 초 청사에 들이닥친 쓰나미는 약 2m 정도로 수위가 상승하고 있음을 느꼈다. 잠시 후 앞 해상 수평선상에 흰 파도가 보이고 쓰나미가 왔음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 그 파고는 해변에서 약 5m 정도로 방파제를 뛰어 넘는 시점에서 상당히 높은 파고임을 알고 긴급히 담당 여직원에게 “~과로부터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장은 생략하고 간격없이 반복방송.
- “대형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높은 곳으로 피난해 주십시오.”
- 쓰나미가 육지를 덮쳐 건물들은 계속해서 거대한 쓰나미에 밀려 쓰러지고 청사 1층도 수몰되었다. 아베계장은 큰 소리로 직원들에게 옥상피난을 지시했다. 1층과 2층이 수몰되어 3층으로 올라가 무선실에서 자신이 직접 다음과 같이 명령조로 호소했다. “피해(逃げろ-!) 높은 곳으로 피해, 달아나(逃げろ-!)”
- 이 방송과 동시에 방재행정무선실에도 바닷물이 들이닥쳐 방송 기자재와 마이크가 수몰돼, 급히 방을 나와 옥상에 피난했다. 아베계장은

바닷물이 들이닥치지 않았다면, “이게 마지막 방송입니다. 사무실이 수몰되고 있습니다.” 라고 방송할 생각이었다고 했다. 만약, 그렇게 전달했다면, 바다가 보이지 않는 지역에서도 “대단히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2) 피난행동을 저해하는 ‘정상화에의 편견(normalcy bias)’

재해 사회학에서 ‘정상화(正常化)에의 편견(偏見)’을 영어로는 ‘normalcy bias’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재난발생시 피난행동을 저해하는 낙관적인 심리상태를 말한다. 일본의 재해 사회학의 1인자인 도쿄대학 히로이 오사무(廣井脩) 교수는 “사태의 절박성을 직접 지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낙관적인 정보를 받아들여 위험을 경고하는 정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정상화에의 편견”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설마” ‘우리는’ ‘여기는’ ‘나는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대피나 피난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리만큼 심리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사실이 아닐 것으로 부정 내지는 회피하려고 하는 의식’을 말한다¹¹⁾. 이러한 심리상태는 재난발생시 재난정보에 둔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난행동을 저해하여 그 피해를 더욱더 확산시킬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실제로 쓰나미가 보이지는 않지만, ‘역시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지, 방재담당자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즉, 피난정보

9) 矢守克也「再論—正常化の偏見」『實險社會心理學研究』(第48巻, 第2号), 京都大學防災研究所, 2009年, p. 140.

10) 井上裕之「命令調を使った津波避難の呼びかけ」『放送研究と調査』(3月号), NHK放送文化研究所, 2012年, p. 24.

11) Yamori Kastuya(2007), Disaster risk sense in Japan and gaming approach to risk commun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ass Emergency and Disaster, 25, 101-131.

는 재난방송에 의해서 '사태의 긴박성'을 '직각'하게 해서, '정상화에의 편견'에 빠지지 않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게 해야 한다.

3) 통상과는 다른 표현의 사용

무엇이 정상화에의 편견을 방해하는가? 이번 재난방송은 통상과는 다른 언어나 음성·형태에 대한 구성이다. 구체적으로는 ①비명 같은 소리 ②재난 직후에 방송이 두절된 것 ③소리가 남성으로 바뀐 점 등이다. 또 여기에 표현에 있어서도 "피해성·달아나(逃げろ-!)" 같은 명령조의 언어가 사용되었다는 점이 통상과는 다른 점이다.

4) 사태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언어로 '피해·달아나(逃げろ)' 라는 표현 등

- '피난'은 '재난을 피해서 안전한 장소로 피하는 것'이다. 피난은 한자어다.
- '피하다(逃げる)' 는 잡히지 않는 곳으로 상대방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급하게 가는 것을 말한다. 즉, '피하다'는 추격해 오는 상대의 눈앞에서 급하게 피신하는 것이다. 또, '피하다(逃げる)'는 일본어로 보다 자신에게 가까워지고 있는 직접적인 표현이다.
- 피난하라(避難せよ)는 문어적인 표현인데 비해, 피난해(避難しろ) 달아나(逃げろ)라는 표현은 구어적인 표현이다. 이 경우가 더 감성적으로는 호소력이 있다고 하겠다.
- '피해·달아나(逃げて)'는 피해 주십시오(逃げてください)의 준말로 명령형인 달아나(逃げろ)보다는 의뢰의 요소가 강하다.

IV. 결론

3·11 대진재는 지진발생 후 쓰나미가 일어나고, 마침내는 원전이 폭발하여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진재의 진행과정을 보도한 방송 3사의 재난보도 내용을 72시간 동안 분석해 보았다. 지진발생 초기 24시간 동안 방송 3사는 전 프로그램 중 중계방송 시간이 무려 40% 전후반대를 유지할 정도로 긴박한 현장중계의 방송화면을 많이 잡았다. 또한, 현장중계 중 최초 24시간 동안은 방송 3사 모두 <쓰나미>에 관한 영상이나 음성물에 관한 보도가 가장 많이 방송 되었다. 특히, 24~48시간 대에는 <원전폭발>과 함께 원전에 관한 정보도 많이 전달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나 피해지에 대한 '생활정보(life line)'의 경우에는 NHK가 상대적으로 생활정보를 많이 전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생활정보 중에서도 '도로교통 정보'가 가장 많이 전달되게 된다. 또, 방송국에 따라 전달 폭에 있어서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NHK의 경우, 재난발생 익일에는 '구출모습'이나 '구출정보'보다는 피난소나 피해자의 모습을 전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니혼TV나 후지TV의 경우도 '피난소나 피해자'의 모습보다는 '구출모습'이나 '구출정보'에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하여 방송하고 있었다. 이것은 아마 민방으로써 시청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송 3사 모두 피해자가 처해있는 심각한 상황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송에는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즉, 말하는 사람, 출연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방송국의 아나운서나 해설위원 등 내부 인물이 많았다. ①NHK의 경우는 아나운서나 기자, 해설위원 등 자국 직원 전달이 80%를 넘어서고 있

으나 외부 전문가는 4.4%에 불과하다, ②니혼TV의 경우는 자국 직원 대응이 75.6%에 이르고 외부 전문가도 8%나 된다. 후지TV의 경우는 직원이 대응하는 비율이 71.4%로 방송 3사 중 가장 낮은 비율이다. 또, 외부 전문가는 13.3%로 NHK에 비해 무려 3배에 가까운 정도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보도내용의 대한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NHK의 재난방송 원고는 정리된 정보를 주로 아나운서나 기자, 해설위원이 전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반면, 후지TV는 스튜디오에 복수의 해설자를 배치해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했다.

또, 방송 3사에서 보도한 보도내용을 보면, 쓰나미가 들이닥치는 긴급 상황에서도 대피방송은 단순, 명료한 최후의 명령조였다.

마지막으로 재난발생 시 나타나는 ‘정상화의 편견(normalcy bias)’에 대한 이론이다. 즉, 재난발생 시 사태의 절박성을 똑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설마’ ‘우리는’ ‘나는 괜찮겠지’하는 정상화의 편견에 해당하는 생각은 피난행동에 있어서는 가장 금물에 속한다. 따라서 쓰나미가 일어나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던지, 아니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여 ‘사태의 긴박성’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해야 한다. 또한, 재난발생 시에는 무엇보다도 ‘피해정보’, ‘생활정보’, ‘복구·구조정보’를 균형 있게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재난정보도 단계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나중 사후 수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1] NHK放送文化研究所『放送研究と調査』(3月號) 2012年
- [2] NHK放送文化研究所『放送研究と調査』(5月號) 2012年
- [3] NHK放送文化研究所『放送研究と調査』(6月號) 2012年
- [4] 矢守克也「再論—正常化の偏見」『實験社會心理學研究』(第48卷, 第2號) 京都大學防 災研究所 2009年
- [5] 廣井脩『災害情報と社會心理』北樹出版 2004年
- [6] Gergen, K. J.(1994), Realities and relationships: Soundings in social construc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7] Yamori Kastuya(2007), Disaster risk sense in Japan and gaming approach to risk commun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ass Emergency and Disaster, 25, 101-131.
- [8] Sugiman, T, Misumi, J, (1988). Development of a new evacuation method for emergencies: Control of collective behavior by emergent small group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3, 2-10.

필자소개



이연

- 1987년 : 日本上智大 대학원 신문학과(석사)
- 1991년 : 日本上智大 대학원 신문학과(박사)
- 1995년 ~ 현재 : 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 2003년 : 日本上智大 신문학과 객원교수
- 2003년 6월 ~ 2004년 8월 : NHK 자문교수(릿포로)
- 2008년 : 선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 2010년 ~ 현재 : 한국재난정보미디어포럼 회장
- 2011년 12월 ~ 현재 : 재난방송중앙협의회 위원